

독일 시민음악학교의 생성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

임 채 흥

1. 글을 시작하며
2. 시민음악학교의 생성 배경
 - 1) 19세기 말까지의 단체 또는 기관을 통한 독일 음악교육
 - 2) 좁은 의미로 본 시민음악학교의 역사
 - 3) 시민음악학교의 현황
3. 시민음악학교의 사회적 역할
 - 1) 음악을 통한 국가건설: L. 케스텐베르크의 '국민음악학교'
 - 2) 음악을 통한 사회개혁: F. 외데의 '사랑의 공동체'
 - 3) 음악을 통한 삶의 고양: W. 트비텐호프의 '축제 공동체'
 - 4) 음악인들을 위한 가장 큰 일터
4. 시민음악학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 1) 성악과 기악의 불균형
 - 2) 교육방침과 방법적인 측면의 과제들
 - 3) 시민음악학교의 정체성 및 교육환경의 문제
 - 4) 일반학교 및 행정단체들과의 관계
5. 글을 맺으며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NRF-2012S1A5B5A07037151).

개 요

한국의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 기관들과 다소의 유사점을 갖는 ‘독일 시민음악학교’는 ‘사회민주주의’와 ‘청소년음악운동’의 이상적인 만남의 산물이다. 각각 ‘정치’ 및 ‘사회’ 분야의 시대적 욕구와 요구에 대한 부응으로 생성된 이 두 사조는 음악교육 분야에서는 시민음악학교의 형태로 가시화되었으며, 그 중심에 레오 케스텐베르크(Leo Kestenberg, 1882-1962)와 프리츠 외데(Fritz Öde, 1887-1970)가 서있다. 이들의 비범한 교육학과 이상적인 협력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들은 이 시민음악학교를 통해 인간정신의 개혁, 인간존엄성의 고양 그리고 음악의 민주화, 즉 ‘음악을 소수 전문인들의 소유로부터 해방시켜 다수 시민들에게 선사한다’는 원칙을 실천한다. 나치독재 기간에 시민음악학교는 히틀러유겐트들의 방과 후 교육과 국민들의 이념교취를 위한 문화학습장소로 오용되었으며, 이 장소는 각각 ‘청소년음악학교’와 ‘국민음악학교’로 이분화 된다. 전후로부터 오늘 날까지 시민음악학교는 정규학교와 문화계 사이에 위치하면서 한편으로 성과위주의 교육으로 경직되어가는 정규학교를 보완하려 하고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일반교육기관들과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려 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속에서 마치 인체의 효소와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력해왔다. 시민음악학교의 이러한 보완적·중개자적 위치는 ‘경쟁’과 ‘성취’라는 음악교육 고유의 불가피한 요인들의 적절한 유지관리와 더불어 타 교육기관들과의 관계 및 자체 교육프로그램 수행 면에서 고도의 평형상태를 요구한다. 도시·농어촌의 격차 없이 국가의 전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교육기관으로 정착한 독일 시민음악학교는 독일인들의 사회건설방식과 종전 후 시대의 교육철학을 반영한다. 이것은 특히, 소수의 엘리트 육성보다 다수의 비전문인 장려라는 시민음악학교의 정체성에서 드러난다. 궁극적으로 이 시민다수는 시민음악학교 창시자들이 지향했던 것처럼 이 학교를 매개로 사회를 축적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거기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한다.

주제어: 독일 시민음악학교, 철세운동, 노래운동, 청소년음악운동,
레오 케스텐베르크, 사회 민주주의

1. 글을 시작하며

음악교육은 전인교육의 한 근본적인 구성요소다. 정기적인 음악활동은 어린이·청소년들의 인지적, 감성적, 미학적 그리고 자동적인 성장발전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음악 외적인 분야에서 확고한 자격을 획득하게 할 뿐 아니라, 본원적, 참여적, 사변적인 시민이 되게 한다.¹⁾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 국가들에서 정규 학교는 성과지향의 교육기관으로 변모 내지 전략해가고 있다. 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대변되는 이 성과지향 교육은 학교교육이 직업 및 사회활동과 직결된다는 이해로부터 생겨나므로, 정규학교들이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부분이자 그들의 결점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산업 및 학문의 지배력 확산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는 미학적 교육에 속하는 예술을 통한 또는 예술을 위한 교육과 인성, 도덕성, 가치관 함양 등을 점점 더 위축되게 한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누구나 뇌리에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사고가 있다: 과연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오로지 정규학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물론 높은 교육열을 나타내는 한국사회에는 정규 학교들 외에 사설 학원들도 차고 넘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학교교육의 연장 내지 보충개념 및 삭막한 경제논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경직된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음악학교의 오케스트라 수업에서 어머니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녀, 어린 남매, 중년 부부, 대학생과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과 신분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각각 자기의 악기를 갖고

1) PISA(국제학력경시대회) 2000, 25. *Sing- und Musikschulen in Bayern. Zur Kommunalen Arbeitstagung "Musikalische Bildung ist Zukunftsinvestition," (...)* (Weilheim: VBSM e.V., 2007), 5.

서 자리할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거기다 그 학교의 오케스트라와 성악 앙상블들이 종교음악과 세속음악, 클래식, 대중음악, 민속음악, 음악극, 뮤지컬, 신 미디어 등을 제한 없이 연주한다면 어떨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농어촌을 포함한 인구 2만 명 안팎의 행정단위마다 누구나 가서 음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립음악학교가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수업료 대부분을 동사무소, 구청 또는 시청이 지원해준다면 어떨까? 물론 음악학원을 운영하거나 개인 음악교습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정들은 일단 상상 밖의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들과 음악학교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음악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서로에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과 음악학교의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가정들은 모두 본고에서 고찰될 ‘독일 시민음악학교’의 몇 가지 실례에 속한다. 이 학교는 독일에서 간단히 ‘음악학교’(Musikschule)로 불리는 공익·비영리 음악교육기관으로서, 이 명칭은 종종 시민음악학교 만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 시민음악학교의 설립목적은 시민들을 음악으로 이끌고, 음악성을 고무하며, 음악적 재능을 발굴 및 장려하고, 음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끌어 일생토록 음악에 기쁨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²⁾ 시민음악학교는 국가교육체계 이내에 있는 한 자율적인 구성요소로서, 정규학교의 음악수업을 대신하지 않으며, 같은 지역 내의 학교, 유치원³⁾, 음악협회, 시민대학, 교회, 주립 음악대학 등과 협력하는 데 큰 중요성을 둔다.⁴⁾ 이 학교는 독일 내에서 정규학교 이외의 음악교육시설로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⁵⁾ 정규

2) “시민음악학교의 목적,” <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index.html>, 검색일: 2015.02.01.

3) 바이에른주 내의 시민음악학교들은 500개 이상의 유아원과 660개 이상의 초중고교 그리고 약 600개 음악협회를 및 합창단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Sing- und Musikschulen in Bayern*, 14-22.

4) “시민음악학교의 협력기관들,” <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 검색일: 2015.02.10.

학교에서의 음악수업은 의무적이고,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시민음악학교에서는 개별화 된 수업이 제공되도록 착안되었다.⁶⁾ 사립음악학교들은 대부분 기업 소속이고, 독자적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가의 인정을 받은 학교도 있다.⁷⁾ 본고에서 이 음악학교가 ‘독일 시민음악학교’로 불리는 것은 그 특성의 부각과 더불어 일반음악대학, 음악원(Konservatorium, Musikakademie), 사설 음악학원 등과의 분명한 구별을 위한 것이다.⁸⁾ 일반적으로 시민음악학교들은 ‘음악학교’ 앞에 해당 관할 행정단위를 명시하고, 마지막에 지명을 추가한다(‘Städtische Musikschule Stuttgart’, ‘Kreismusikschule Kaiserslautern’). 협회음악학교들은 보통 ‘등록된 협회’(e.V.)를 교명 뒤에 명시한다(Musikschule Garmisch-Partenkirchen e.V.). 1995년을 기점으로 시민음악학교의 수가 줄어들던 상황에 직면하여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 1931-2006)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2003년).

만약 스스로 음악을 연주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면, 그것이 그 사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는 음악학교나 일반학교가 음악교

-
- 5) Reiner Mehlig, “Musikschule,” “Musikschule,”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Allgemeine Enzyklopädie der Musik*, Sachteil, Bd. 6. Kassel u.a.: Bärenreiter u.a., 1997, 1609-1618, 인용: Sp. 1613.
 - 6) Günther Görtz, *Grundzüge der Theorie einer Musikschule* (Augsburg: Verlag Wißner, 1998), 13.
 - 7) 오늘날에는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사립음악학교들도 생겨나고 있다(예: Hamburg School of Music). “사립음악학교,” <http://de.wikipedia.org/wiki/Musikschule>, 검색일: 2015.02.09.
 - 8) 독일어에서 ‘시민’(Bürger)은 ‘성(Burg)내 거주자’라는 어원으로부터, 한 민주사회의 ‘국민’으로 그 의미가 전승 되었고, 한국어에서도 ‘도시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말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백성을 뜻’하므로,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시민’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시민의 정의,” <http://ko.wikipedia.org/wiki/%EC%8B%9C%EB%AF%BC>, 검색일: 2014.10.10.

육부문의 지원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미래지향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 독일 음악교육은 -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하고, 이미 상실된 부분에서는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⁹⁾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독일 시민음악학교의 생성배경과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고, 나아가 방향 및 극복되어야 할 과제들을 설정하는 데에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고찰의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이 한국의 사회음악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2. 시민음악학교의 생성 배경

1) 19세기 말까지의 단체 또는 기관을 통한 독일 음악교육

독일문화권에서 공적·사적 사회단체들에 의해 음악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중세 후기부터이며, 그 대표적인 형태는 아마도 가창학교일 것이다. 물론 가창학교의 역사는 다시 1,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 4세기경의 로마에 이르며, 그 다음으로는 상트 갈렌, 파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등지의 수도원 소속 칸토라이가 있다. 14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독일어권의 사회 음악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은 역시 마이스터징어로 불리는 직업조합의 가창학교였다.¹⁰⁾ 마이스터징어가 종료된 날짜는 정확히 1839년 10월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최후의 단체였던 울름의 마이스터징어 길드(die Ulmer Meistersingerzunft)가 해체된 시점이다.

9) *Statistisches Jahrbuch der Musikschulen in Deutschland 2007*, hg. von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 e.V.(VdM) (Bonn: VdM-Verlag, 2007), 4.

10) 이러한 상황은 17세기로의 전환기에 오페라 장르가 생성되면서 오페라학교가 설립된 것과는 일맥상통한다.

이 단체는 자신의 모든 자료를 1825년에 창단된 같은 도시의 남성합창단 리더크란츠(Liederkrantz Ulm)와 멤밍엔 리더타펠(Liedertafel Memmingen)에 넘겨주고 역사를 마감한다.¹¹⁾ 중세의 가창학교에 비견되는 바로크시대의 단체로는 일반학교, 제후들의 궁정,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칸토라이가 대표적이다. 교회 소속의 칸토라이는 오늘날까지 교회합창단(Kirchenchor)과 혼용되고 있다. 여성들이 교회음악에 투입되기 이전까지 교회의 칸토라이는 학교의 칸토라이에서 노래하던 소년들이 도맡았다. 제후들의 궁정에 있었던 소년합창단(Knabenkapelle¹²⁾)과 시민들의 취미단체였던 콜레기움 무지쿰(Collegium musicum)도 칸토라이와 공존했다. 대표적 기악연주단체 겸 음악가 양성기관으로는 시립악대(Stadtpeferei)가 있었다.

독일어권에서 기악이 처음으로 꽃을 피운 시대는 16세기로서, 이것은 콘서바토리의 생성과 밀접하다. 나폴리에서 처음으로 콘서바토리가 생겨난 것은 1537년의 일로서(Conservatorio Santa Maria di Loreto), 먼저 보호소나 고아원 등에 수용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이 실시된다.¹³⁾ 베니스에 설립된 첫 음악학교 오스페달레(Ospedale, 영: Hospital, 독: Spital)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때로부터 유럽 각지에서는 음악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¹⁴⁾ 17세기에 성악문화의 꽃을 피운 나라는 포르투갈이며,¹⁵⁾ 18세기 말에 오페라학교로 문을 연 파리 왕립가창

11) Philipp Spitta, *Musikgeschichtliche Aufsätze* (Berlin: Verlag von Gebrüder Paetel, 1894), 302.

12) 카펠레(Kapelle)는 원래 주로 직업적인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를 일컫는 말이었다.

13) Brockhaus Riemann *Musiklexikon in vier Bänden und einem Ergänzungsband*, herausgegeben von Carl Dahlhaus und Hans Heinrich Eggebrecht, Zweiter Band (Mainz: Atlantis·Schott, 1998), 320.

14) 벨리니의 친구였던 프란체스코 플로리모(Francesco Florimo, 1800-1888)는 이탈리아 음악학교의 역사를 저술한다. Francesco Florimo, *La scuola musicale di Napoli e i suoi Conservatori*. 4 vols, Naples: Morano, 1881-1883.

15) Hermann Mendel und August Reissmann, "Portugiesische Musik," *Musikalisches Konversationslexikon*, Ergänzungsband (Berlin: Robert Oppenheim, 1883), 493.

학교(Ecole Royale de Chant et de Declamation, 1784년)는 기악을 도입하면서 ‘국립음악학교’(Institut Nationale de Musique)로 교명을 변경한다. 콘서바토리로 간주될 수 있는 독일어권 첫 음악교육기관으로는 1797년 요셉 프렐리히(Franz Joseph Fröhlich 1780-1862)가 뷔르츠부르크 궁정합주단을 토대로 설립한 뷔르츠부르크 음악 아카데미(Collegium Musicum Academicum Wirceburgenser)가 있는데, 이것은 뷔르츠부르크 음악대학의 전신이 된다.¹⁶⁾

19세기의 도래와 함께 볼로냐(1804년)와 밀라노(1807년)를 선두로 유럽의 대도시들에 콘서바토리가 설립되기 시작하고, 베를린에 설립된 콘서바토리는 1822년에 켈터(Carl Friedrich Zelter, 1758-1832)에 의해 ‘왕립 교회음악연구소’로 개명된다. 리스트는 1835년 파리에 “사회 속에서 예술가들의 형편과 그들의 위치에 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고, 국가기관들이 음악교육을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¹⁷⁾ 프로이센 정부는 1824년에 국가 음악정책 수립을 위해 라이씨거(Carl Gottlieb Reissiger, 1798-1859)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로 파견한다.¹⁸⁾ 19세기 중엽부터는 독일의 콘서바토리들에서 기악이 꽃을 피우는데, 선호된 악기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었다. 독일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음악학교는 멘델스존과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 1843년에 설립된 라이프치히 콘서바토리였다. 작센 왕국의 두 번째 음악학교는 1856년 드레스덴에서 문을 열고 독일에서 최초로 교사양성과정을 두는데, 나중에 카를 마리아 폰 베버 음악대학이 된다.¹⁹⁾ 바그너도 이미 1834년에 독일성악의

16) “요셉 프렐리히,” http://wuerzburgwiki.de/wiki/Franz_Joseph_Fr%C3%B6hlich, 검색일: 2015.02.20.

17) Franz Liszt, “Zur Situation der Künstler und ihrer Stellung in der Gesellschaft,” Franz Liszt. Frühe Schriften, hg. von Rainer Kleinertz (Wiesbaden: Breitkopf & Härtel, 2000), 3-65.

18) Carl Freiherr von Ledebur, *Tonkünstler-Lexicon Berlin's von den ältesten Zeiten bis auf die Gegenwart* (Berlin: Verlag von Ludwig Rauh, 1861), 445.

도약을 위한 교육시설 마련을 사회에 요청했고,²⁰⁾ 1866년에는 자신의 예술후원자인 바이에른 국왕 루트비히 2세에게 독일 오페라극장의 음악적 퇴락을 보고한다. 베를린에서는 1850년에 개교한 슈테른 콘서바토리가 명성을 얻어 베를린 시립 콘서바토리로 바뀐다.²¹⁾ 이 학교의 설립멤버였던 쿨락(Theodor Kullak, 1818-1882)은 1855년에 독자적으로 피아노 부문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되는 새 음악예술 아카데미(Neue Akademie der Tonkunst)를 개교하고,²²⁾ 1897년부터 그의 아들 프란츠(Franz Kullak, 1844-1913)에게서 시민음악학교의 선구자 레오 케스텐베르크(Leo Kestenberg, 1882-1962)가 피아노를 배운다. 이때부터 베를린에는 수많은 음악교육시설이 생겨나고, 바그너의 의사가 반영된 음악학교도 뮌헨, 뷔르츠부르크, 바이마르, 베를린 등지에 설립된다.

이 시기에 독일에서는 음악교육의 방법론적 개선을 위한 연구서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자로는 브레슬라우어(Emil Breslauer, 1836-1899),²³⁾ 리만(Hugo Riemann, 1849- 1919), 크레취마르(Hermann Kretschmar, 1848-1924)(“독일의 전문음악가 양성”²⁴⁾ 기고)등과 잡지로

19) *Hochschule für Musik Carl Maria von Weber Dresden 1856-2006*. Festschrift, hg. von Manuel Gervink (Dresden: Verlag Sandstein, 2005).

20) Nils Koschwitz, *Eine Musikschule als Heilsbringer für die deutsche Musik und Nation? Eine Einführung in Richard Wagners Bericht (...)* (Frankfurt a.M.: Peter Lang, 2011), 9.

21) Cordula Heymann-Wentzel, “Das Stern’sche Konservatorium der Musik in Berlin,” *Musikwelten - Lebenswelten*, hg. von B. Borchard u.a., Köln, Weimar (Köln u.a., 2000), 249 - 263.

22) Robert Eitner, “Kullack, Theodor,” *Allgemeine Deutsche Biographie*. Bd. 17 (Leipzig: 1883), 361.

23) J. Kremer, D. Schmidt (Hg.), *Zwischen bürgerlicher Kultur und Akademie: zur Professionalisierung der Musikausbildung in Stuttgart seit 1857* (Schliengen: Argus, 2007), 186.

24) Hermann Kretschmar, “Ausbildung deutscher Fachmusiker. Eine musikalische Zeitfrage,” *Jahrbuch der Musikbibliothek Peters für 1901*, Jg. 8 (Leipzig: C. P.

는 ‘일반음악신문’(AmZ), ‘음악신보’(NZfM), ‘우아한 세상을 위한 신문’(Zeitung für die elegante Welt), ‘국경사자’(Grenzboten) 등이 대표적이다.

2) 좁은 의미로 본 시민음악학교의 역사

이른바 ‘개혁교육학’과 ‘청소년음악운동’의 영향 하에서,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음악교육자들에 의해 착안된 ‘새로운 음악학교’는 시민음악학교의 비가시적 모체가 되며, 이 두 학교의 공동된 지향점은 전 국민 대상의 비전문, 비직업적 음악교육이다. 따라서 직업음악가의 길을 예비하는 교육은 부수적이며,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전체의 1% 미만이다.²⁵⁾ ‘새로운 음악학교’는 전통적 콘서바토리로부터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다른 음악교육 시설 또는 단체들²⁶⁾과는 달리 1905년 알베르트 그라이너(Albert Greiner, 1867-1943)가 아우스부르크에 설립한 ‘아우스부르크 가창학교’(Augsburger Singschule)는 시민음악학교와 공통점을 많이 가지므로,²⁷⁾ 여기에 소개될 수 있겠다. 그라이너는 특히 음악교육이 사회적인 약자계층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교육콘셉트를 세운다.²⁸⁾ 이 학교는 노래 부르기를 확산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었다.²⁹⁾

Peters, 1902), 29-44.

25) Günther Görtz, *Grundzüge der Theorie einer Musikschule*, 11.

26) 가령 시민음악학교와 유사한 아샤펜부르크 음악학교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었고(설립: 1810년), 현존하지만, 여전히 개별적이다. <http://www.musikschule-aschaffenburg.eu/>, 검색일: 2015.01.20.

27) Guido Waldmann, “Zur Geschichte der Musikschulen in Deutschland,” W. Müller-Bech und W. Stumme (Hg.), *Die Musikschule, Bd. I: Situationen - Meinungen - Aspekte* (Mainz: 1973), 168.

28) Sigrid Abel-Struth, *Grundriß der Musikpädagogik* (Mainz: Schott Music, 1985), 494.

29) 1978년에 변경된 교명은 ‘아우스부르크 시 알베르트-그라이너 가창 및 음악학교’.

그의 활동과 고무에 의해 아우스부르크를 중심으로 일종의 가창학교운동이 일어났으며, 성악교사 및 합창지휘자 양성기관도 설립된다. 1952년에는 수많은 가창학교들이 가창학교연합회(Verband der Singschulen)를 결성하는데, 이들은 1970년에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에 소속된다.³⁰⁾ 그라이너보다 100년 앞서 네겔리(Hans Georg Nägeli, 1773-1836)가 취리히에 세운 ‘노래학교’(Singinginstitut, 1805년)는 스위스 국민합창운동의 모체가 되었을 뿐, 음악학교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1920년경에 시작된 ‘청소년음악운동’과 그것의 한 분파인 ‘연주가길드’(Musikantengilde)³¹⁾ 역시 시민음악학교의 한 정신적 모체가 된다. 연주가길드라는 이름은 프리츠 외데(Fritz Öde, 1887-1970)가 한 음악잡지 및 그와 연계된 류트연주단체를 개명한 것이다.³²⁾ 연주가길드와 청소년음악운동의 배경에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대두된 사회주의적 진보성향의 ‘개혁교육학’이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일반적인 국민교양과 개개인에 내재하는 전인적·음악적 힘의 일깨움을 통한 ‘새로운 인간의 실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배움의 연령에 해당하는 어린이·청소년세대들 뿐 아니라, 배움의 시기를 지나쳐버린 성인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음악배우기를 추구한 이 사조는 사회의 총체적 개혁(‘국가개조’³³⁾)을 추구하고 있다. 개혁교육학의 배경이 된 사조들 가운데는

Andreas Becker, *Albert Greiner und die Augsburger Singschule*, 278.

30) Andreas Becker, *Albert Greiner und die Augsburger Singschule*, 276.

31) “연주가길드,” http://de.wikipedia.org/wiki/Georg_G%C3%B6tsch, 검색일: 2015.02.22.

32) 외데는 자신이 1925년 4월 1일에 베를린에 세운 음악학교도 ‘연주가길드의 음악학교’로 명명하고, 이 학교의 목적을 국민과 예술 사이의 괴리극복임을 밝힌다. Fritz Öde, Hermann Reichenbach und Fritz Reusch, “Volks-Musikschule der Musikantengilde Berlin,” Dorothea Hemming (Hg.),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Musikschule (1902-1976)* (Regensburg: Gustav Bosse Verlag, 1977), 65-66.

33) ‘국가개조’란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한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욕구의 총체를 대변하는 말인데, 사실은 ‘인간개조’가 보다 더 정확한 개념

무엇보다, 진보성향의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식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모의 집, 학교 그리고 교회에 대항하면서 노래와 더불어 자연으로 향하 이른바 ‘철새운동’(Wandervogelbewegung)과 이 운동의 한가운데서 1909년에 유명한 민요선곡집 『기타 치는 한스』(Zupfgeigenhansl)³⁴⁾를 펴낸 의대생 한스 브로이어(Hans Breuer, 1883-1918)가 있다.³⁵⁾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음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착상, 곧 사회적 음악의 실현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가장 적절하게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음악학교의 설립을 향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사회적인 약자계층은 여기서 특별히 고려된다.

이러한 착상을 보다 구체화 및 실현시킨 첫 인물은 레오 케스텐베르크다. 1921년에 발표된 “음악교육과 음악장려”라는 제목의 건의서에는 이러한 착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 각 도시와 지방행정단체가 음악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³⁶⁾³⁷⁾ 케스텐베르크가 내놓은 국민음악학교는 가창학교, 기악학교, 그리고 리듬체조학교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³⁸⁾ 케스텐베르크와도 함께 활동했으며, 그의 뒤를 이어 오랜 세월동안 활동한 인물은 프리츠 외테다. 1924년에 발표한 “청소년과 국민을 위한 음악학교 - 시대의 계명”³⁹⁾이라는 글에서 외테

이 되겠고, 이것의 보다 부드러운 표현이 바로 ‘새로운 인간의 실현’이 되겠다.

34) ‘Zupfgeige’는 ‘탄현바이올린’이라는 뜻으로서, 일반적으로 ‘기타’로 번역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류트와 기타의 중간형 악기인 ‘기타류트’(Gitarrenlaute)를 일컫는다. 이 악기의 다른 이름으로는 독일류트, 철새류트, 둥근 류트, 류트기타, 잡종류트 등이 있다.

35) *Der Zupfgeigenhansl* hg. von Hans Breuer, Reprint der Ausgabe Leipzig 1913 (Leipzig: VEB Friedrich Hofmeister Musikverlag, 1982), 258.

36) Leo Kestenberg, *Bewegte Zeiten* (Wolfenbüttel: Mösel Verlag, 1961), 58.

37) Oliver Scheytt, *Musikschule. Ein Beitrag zum kommunalen Kulturverwaltungsrecht*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Verlag W. Kohlhammer, 1989), 62.

38) 그의 “국민음악학교”에 관해서는 “3. 시민음악학교의 역할” 단원에 상론된다.

39) Fritz Öde, *Musikschulen für Jugend und Volk - Ein Gebot der Stunde* (Wofelbüttel:

는 음악대학, 콘서바토리, 개인교습 등의 교육기관들을 통해 수준 높게 길러진 개별적인 직업음악가들과는 달리, 아마추어나 애호가로서 악기나 노래를 보다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공동체를 구상한다. 외데가 케스텐베르크의 ‘국민음악학교’에 대한 세분화와 더불어 새롭게 추가한 명칭이 바로 ‘청소년음악학교’(Jugendmusikschule)다. 이 두 음악학교의 차이는 연령에 있다. 첫 시민음악학교는 외데가 1923년 베를린에 설립한 ‘살로텐부르크 청소년음악학교’다. 그의 모범을 좇아 함부르크를 포함한 북부 및 칼스루에 등 중부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국민음악학교’가 기존의 ‘시민대학’의 부설로서 생겨난다.⁴⁰⁾ 이들은 협동 및 삶의 공동체를 실행하는 ‘국민교육기관’이다. 프로이센 정부의 음악행정가 케스텐베르크의 발상에 따라 1930년에 시민과 청소년 음악장려를 위한 첫 교사양성 전문학과가 생겨나고, 그의 체제 하에서 베를린 예술아카데미의 학교음악 전공교수로 일했던 프리츠 외데는 시민음악학교들을 설립하고 단체수업을 도입하여, 비싼 사설 음악수업에 맞서는 대안이 되게 했다.

국가사회주의자들(Nationalsozialisten)의 집권과 함께 모든 단체들은 그들의 이념에 따라 분류되어 독재단체에 강제합병 또는 해체된다. 다행히 시민음악학교의 정신과 원칙은 거의 승계된다.⁴¹⁾ 음악교육의 내용과 명목은 민속음악을 중심으로 한 독일음악 - 사실상 나치이데올로기 - 의 중계와 보장이었다.⁴²⁾ 이 시기에 음악학교의 장려에 힘쓴 또한 사람으로, 외데의 제자이자 청소년음악학교의 교사였던 볼프강 슈툼메(Wolfgang Stumme, 1910- 1994)가 있다. 그는 제국청소년선도부의

Julius Zwißlers Verlag, 1924).

40) Reiner Mehlig, “Musikschule,” Sp. 1611.

41) “Ein Jahr Musikschulen für Jugend und Volk,” *Reichs-Jugend-Pressedienst*, Nr. 197 (1939.08.29), 2.

42) *Völkische Musikerziehung*, 5. Jahrgang, 1939, Heft 3, 139.

음악담당관이 되었고, 독재정권의 이념에 준해 청소년음악학교를 정규 학교 및 부모의 집 밖에서 히틀러유겐트들을 위한 하나의 문화적 학습 장소로 규정한다.⁴³⁾ 이 시기에 시민음악학교는 성인들을 위한 ‘국민음악학교’와 ‘청소년음악학교’로 이분화 되는데, 후자는 ‘히틀러유겐트’들에게는 의무규정이었다.⁴⁴⁾ 음악학교가 없는 지역들에는 연주동아리가 음악교육을 도맡았다.⁴⁵⁾ 음악학교의 수는 1938년의 10개⁴⁶⁾에서 1939년에는 66개로 성장하여 약 700명의 교사와 15,580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⁴⁷⁾ 1944년에는 약 160개교⁴⁸⁾가 된다. 4년간의 러시아 포로생활에서 석방된 슈툼메는 외테와 함께 전후의 시민음악학교 재건에 기여한다.⁴⁹⁾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부터 5년간 시민음악학교의 공식 역사는 단절되고, 새로운 탄생을 위한 재정비 기간을 갖는다. 이때에 가장 큰 영향력과 실행력을 발휘한 인물은 빌헬름 트비텐호프(Wilhelm Twittenhoff, 1904-1969)다. 그는 1929년에 이미 국민음악학교의 모체가 된 청소년음악

43) Wolfgang Stumme (Hg.), “Musik und Volk,” Wolfgang Stumme, Hrsg., *Schriften zur Musikerziehung*, Bd. 1, 2. Auflage (Berlin-Lichterfelde: Vieweg, 1944), 53-62, 인용: 53.

44) Franz Riemer, “Fritz Jode und der Hohe Meißner,” Jürgen Reulecke, *50 Jahre danach - 50 Jahre davor: Der Meißnertag von 1963 und seine Folgen* (Göttingen: V&R, 2014), 163-172, 167.

45) “Spielschar oder Musikschule?” *Reichs-Jugend-Pressedienst*, Nr. 189 (1938.08.17), 2.

46) “Musikschulen für Jugend und Volk,” *Die Hitlerjugend*, Nr. 34 (1938.04).

47) “Ein Jahr Musikschulen für Jugend und Volk,” *Reichs-Jugend-Pressedienst*, Nr. 197 (1939.03).

48) Michael Schenk, *Zwischen Ideologie und Innovation. Eberhard Werdin und die Bedeutung der Musikpraxis in Schulmusik und Musikschule der Nachkriegszeit* (Essen: Die Blaue Eule, 2001), 90.

49) “Protokolle der Tagung »Jugendmusikschulen« vom 5. bis 7.9.1952 auf der Jugendburg Oberwerries bei Hamm/W.” Dorothea Hemming (Hg.), *Dokumente zur Geschichte*, 188-197, 192.

악운동을 부각시키는 글을 발표했고,⁵⁰⁾ 1950년의 “새로운 음악학교 - 우리 시대의 요구”라는 글에서는 음악학교의 재건을 역설한다. 이미 같은 해에 새 출발을 위한 음악교육자들의 모임도 결성된다. 1952년에 시민음악학교는 나치의 정치적 남용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재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12개의 시민음악학교들은 오버베리스(Oberwerries)에서 회합을 갖고 ‘청소년 및 국민음악학교연합회’를 결성한다.⁵¹⁾ 이 연합회는 1966년에 136개 회원학교의 동의로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로 개명되고,⁵²⁾ 거듭되는 개혁 속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9년부터 1990년까지는 조기음악교육 전문가 디트하르트 부허(Diethard Wucher, 1930-1997)⁵³⁾가 연합회의 의장직을 맡으면서, 음악학교가 독일정부의 교육정책과 융화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간다.⁵⁴⁾

동독의 음악학교는 1947년에 재개되었고, 1955년부터는 운영의 주체가 각 지역 행정단체로부터 중앙정부의 문화부 소속으로 변경된다.⁵⁵⁾ 1960년대에 음악학교는 직업음악가의 길과 음악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교로 탈바꿈한다. 1989년부터 동독 음악학교들은 이미 서독의 시민음악학교연합회와 협력 체제를 갖추고 ‘DDR 음악학교연합’을 창설한다. 이 조직은 재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에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에 소속된다.⁵⁶⁾

50) Wilhelm Twittenhoff, “Volksmusikschule,” *Zeitschrift für Musik*, 96. Jg., 1929, Heft 9, 528.

51) “Protokolle der Tagung »Jugendmusikschulen«,” 188-195.

52) “시민음악학교연합회 개명,” <http://www.musikschulen.de/vdm/chronik/index.html>, 검색일: 2015.03.20.

53) “디트하르트 부허,” <http://www.manufakturen-guide.com/Preisstifter/Diethard-Wucher-Preis-91384.html>, 검색일: 2015.04.12.

54) Diethard Wucher (Hg.), *Die Musikschule*, Band II, Dokumentation und Materialien (Mainz: Schott Musik International, 1994).

55) Reiner Mehlig “Musikschule,” Sp. 1613.

56) “동서독 시민음악학교의 통합,” <http://www.thueringer-musikschulen.de/landesverband/>

독일 재통일 이후에는 즉각 문화연합업무 부서가 창설되고, 차이점들 및 공통점들을 융합시켜 나간다. 1996년부터 3년 주기로 열리는 ‘독일 시민음악학교의 날’은 음악학교네트워크의 확장에 기여한다.

3) 시민음악학교의 현황

독일 시민음악학교는 시립음악학교, 권역음악학교, 협회음악학교, 기업체 부설 음악학교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외국인들을 포함한 전 국민이 수확자격을 갖는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시민음악학교들 중 앞의 두 가지는 해당지역의 공공행정기관에 속한다. 따라서 운영자는 재정과 행정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공식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협회음악학교의 경우 음악학교가 소속된 지역 행정기관이 이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음악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되, 그 행정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기업체 부설 음악학교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나, 공공행정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운영된다. 1997년 1월 현재 독일 시민음악학교 총체의 70.2%가 공공행정 기관 소속이며, 28.6%가 협회 소속, 그리고 나머지 1.2%는 기업이나 재단에 속한다.⁵⁷⁾ 이 비율은 회계연도와 연방주에 따라 달라진다.⁵⁸⁾ 가령 2007년에 베를린과 튀링엔주의 음악학교들은 100% 공공행정기관 소속이며,⁵⁹⁾ 바이에른주의 경우 공공 대 민간의 비율이 61%:39%다.⁶⁰⁾ 같은

geschichte/ index.html, 검색일: 2015.03.09.

57) Reiner Mehlig, “Musikschule,” Sp. 1615.

58) 2007년의 소속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 행정단체에 약 65%, 공식협회에 33% 그리고 사립법인에 약 2%. 2007년에 등록된 총 920개교 중 이 세 기관에 각각 559, 308 그리고 13개교가 소속되어 있다. *Statistisches Jahrbuch der Musikschulen in Deutschland 2007*, 10.

59) *Statistisches Jahrbuch der Musikschulen in Deutschland 2007*, 10.

60) *Sing- und Musikschulen in Bayern*, 5.

해에 독일 시민음악학교 전체의 재정 액수는 한화로 거의 1조원 정도였으며, 자부담수업료(약 47%), 공공기관들의 보조금(51%),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 이 비율은 연방주들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인다. 국가보조금 비율은 가장 높았던 1993년(61%⁶¹⁾) 이후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는 창립 43년만인 1995년에 사상 최대인 1,006 개교를 기록한다.⁶²⁾ 2015년 초 현재 시민음악학교 소속 파견지들은 총 4,000개소에 달하고,⁶³⁾ 최종 집계된 시민음악학교 총 수는 929개다(2014년 1월 1일 현재).⁶⁴⁾ 음악학교 수가 가장 많은 연방주는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인데, 전자는 2014년 1월 현재 218개교, 후자는 2007년 현재 215개교를 보유하고 있다.⁶⁵⁾ 연방 전체에서 가장 큰 재정규모를 가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190,000명 이상의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다.⁶⁶⁾ 2015년에 시민음악학교연합회의 총 교사 수는 38,000명이 넘는다.⁶⁷⁾ 1967년에 처음으로 작성되어 1972년에 증보된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의 확장계획안에 따르면, 인구 2만 명을 보유한 행정구역 내에 하나의 학교, 인구 5천 명을 가진 하위 행정구역에는 파견 수업장소를 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⁶⁸⁾ 이보다 앞서 트비텐호프(Wilhelm Twittenhoff, 1904-1969)는 1951년에 인구 3만 명 당 1개교를 제안했다.⁶⁹⁾ 위의 계획들은 평균적으로 인구의

61) *Sing- und Musikschulen in Bayern*, 31-32.

62) “시민음악학교의 역대 최대 숫자,” <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fakten/vdm-musikschulen/index.html>, 검색일: 2014.12.10.

63) “시민음악학교 파견소,” <http://www.musikschulen.de/vdm/index.html>, 검색일: 2015.03.10.

64) “시민음악학교 수(2014년),” <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fakten/vdm-musikschulen/index.html>, 검색일: 2015.04.01.

65) 위와 같은 곳, “2007년 바이에른 주의 시민음악학교 수,” 검색일: 2015.04.20.

66) *Statistisches Jahrbuch der Musikschulen in Deutschland 2007*, 11.

67) “시민음악학교 총 교사 수(2015년),” <http://www.musikschulen.de/vdm/index.html>, 검색일: 2015.03.20.

68) “음악학교 확장계획안(1972년),” http://www.freygeist.com/referenzen/005_VDM.pdf, 검색일: 2015.02.20.

1-2%가 음악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성패를 따져 볼 경우, 대도시에서는 실패로, 작은 행정구역들에서는 성공으로 나타난다. 개별 학교의 예를 보면, 가창학교로 시작하여 이미 2005년에 설립 100주년을 맞은 ‘아옥스부르크 가창 및 시립음악학교’에는 2,200여명의 학생과 63명의 교사가 소속되어 있다.⁷⁰⁾ 2015년 현재 선호되는 악기별 순위는 피아노, 기타, 리코더, 바이올린, 타악기, 플루트, 키보드 등이다.⁷¹⁾ 현재 수학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분류는 총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본단계’에는 취학 전 아동(4-6세) 및 저학년 초등학생(6-8세)들이 수용된다. 여기서는 음악 조기교육 및 기본교육이 이루어지며, 아이들에게 음악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을 갖게 하려는 목적도 중시된다. ‘하급단계’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전공분야의 연마가 시작된다. ‘중급단계’ 및 ‘상급단계’에서는 전공분야의 연마가 지속되며, 여기에는 일정한 수준을 점검하는 시험이 있다. 기본단계 이외의 모든 단계에서의 수업은 적어도 하나의 전공과목(악기, 성악), 앙상블과목 내지 보충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개별수업 또는 단체수업은 교육학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보충과목은 선택되며, 그룹 또는 학반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중간시험, 능력시험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2015년 현재 시민음악학교 전체 학생 수는 전년보다 약 7,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 학생 분포비율은 [표 1]과 같다.⁷²⁾

69) Wilhelm Twittenhoff, “Jugendmusik und Musikschulen”, *Junge Musik*, 2. Jg. 1951, Heft 7, 189.

70) Andreas Becker, “Albert Greiner und die Augsburgsinger Singschule,” Dissertation (Universität Augsburg, 2007), 297.

71) “악기별 선호도(2015년),” <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fakten/die-beliebtesten-instrumente/index.html>, 검색일: 2015.04.01.

72) “연령대비 학생 분포율(2015년),” <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fakten/schuelerzahl-altersverteilung/index.html>, 검색일: 2015.04.10.

[표 1] 독일 시민음악학교의 연령대별 학생 분포비율

(연령대: 만 나이, 비율: %, 통계시점: 2015년 초)

연령대	-5	6-9	10-14	15-18	19-25	26-60	61-
비율	18	31	30	11	3	6	1
학령	기초	초등	중등	고등	성인 I	성인 II	성인 III

‘수업’과 ‘장려’로 이분화 되는 시민음악학교의 고유한 업무 가운데 문화 활동은 후자에 속하며, 이것은 크게 세 가지, 곧 정기연주회 및 정기행사, 행사지원, 초청연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정기행사로서는 교사 음악회(개별적), 자매결연된 이웃 나라 또는 도시들을 방문하는 연주여행, 집중연습을 위한 오케스트라 주말 또는 레저시간(Freizeit), 학교개방일, 2월의 카니발, 전 시민들을 위한 여름축제 등이 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행사지원은 일상의 행사들을 음악으로 장식하는 일과 지역축제에 출연하는 일로 나누어진다. 초청연주회에는 외부 음악가들이나 파트너들이 당 지역으로 초청된다. 그 밖의 연주회들로는 음악학교 내부 발표회, 지역 단체들과 함께하는 연합음악회들이 있다. 시민음악학교가 담당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전국 ‘청소년 음악경연대회’(Jugend musiziert)다. 독일 음악협회(Deutscher Musikrat)에 의해 1963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이 대회의 행정실무를 시민음악학교가 대행하고, 일부교사들은 다른 지역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이 행사는 지역예선, 연방주 중간경연, 그리고 연방본선(Bundeswettbewerb)으로 이루어진다.⁷³⁾

73) 2013년에는 2만여 명이 148개 국내 도시 및 30개 국외 독일학교에서 개최된 지역예선에 참가했고, 그 중 6천 5백여 명이 연방주 중간예선에, 그리고 거기서 약 2천여 명이 연방본선에 진출했다. “청소년 음악경연대회,” http://de.wikipedia.org/wiki/Jugend_musiziert, 검색일: 2015.04.20.

3. 시민음악학교의 사회적 역할

독일 시민음악학교의 사회적 역할은 음악을 통한 국가·공동체·개인의 문화적 자기실현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이 세 영역은 각각 세 인물로 대표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인물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거시적 영역으로부터 미시적 영역으로 내실 있게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이러한 각각의 역할에 적합한 이상적인 교육자적 자질과 사교세계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활동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케스텐베르크가 국가(프로이센)의 최고 음악행정관으로 부임한 1918년이 된다. 시민음악학교가 음악가들에게 최대의 일자리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의 큰 역할이 되겠다.

1) 음악을 통한 국가건설: L. 케스텐베르크의 ‘국민음악학교’

‘철새운동’과 ‘노래운동(Singbewegung) - ‘청소년음악운동(Jugendmusikbewegung)’이 독일 시민음악학교의 생성에 최적의 토양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이 토양에 파종한 인물은 레오 케스텐베르크다. 그의 활동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 걸쳐 진행되는데, ‘혁신’과 ‘장려’라는 근본적 양대(兩大) 과제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한’ 그리고 ‘음악을 위한’ 교육이라는 더 포괄적인 개념을 동시에 성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시민 전체의 교양은 ‘음악을 통한’이라는 개념 하에, 그리고 전문직업인 양성은 ‘음악을 위한’이라는 개념 하에 포괄된다. 그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헝가리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의 거주지 체코의 반유대적 사회분위기 하에서도 삶에 대한 긍정과 박애사상을 키웠으며, 유학지인 독일에서 범국가적인 일을 이룩한다.⁷⁴⁾ 클락과 부조니(Ferruccio Busoni, 1866-1924)

74) Leo Kestenberg, *Gesammelte Schriften Bd. 1: Die Hauptschriften*, hg. von Wilfried Gruhn (Freiburg: 2009), 210.

의 제자였던 그는 먼저 베를린을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하면서 당대의 탁월한 리스트해석가로 명성을 얻었으며, 청소년 때부터 갖게 된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음악으로 이루고자 음악행정가의 길을 개척한다. 그는 불과 13세의 최연소 나이로 체코(Liberec)에서 사회민주당에 가입한다.⁷⁵⁾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독일의 파탄 및 황제제국의 몰락시기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던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케스텐베르크는 음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의 곤경보다 높이 격앙되는 체험으로서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다.⁷⁶⁾ 그는 예술은 엄선된 재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적인 추구를 위해 음악에 동참하고, 수용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필요로 하므로, 국민대중의 음악생활과 음악장려 그리고 넓고 깊은 기초 작업 없이는 보다 높은 음악예술이 꽃필 수 없음을 알았다.⁷⁷⁾ 그는 먼저 독일 사회민주당(SPD)에 가입했고, 베를린 음악대학 교수직을 획득한 후, 프로이센의 교육부 관료가 된다. 1920년대에 그는 초중고 및 대학의 음악교육과 음악교직 지침을 마련하면서 교육분야 및 사회음악의 개혁을 단행한다. 이로써 그는 국가 전체의 음악교육 및 음악활황(音樂活況)을 정비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운동의 가능성을 그는 노동자합창운동에서 보았다. 그가 착안한 ‘국민음악학교’(Volksmusikschule)는 음악교육 혜택을 받기에 불리한 모든 연령층의 사회적 약자와 하층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인데, 이것은 “국민음악학교는 지금까지 풍부한 음악수업으로부터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는 그 국민 일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⁷⁸⁾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그의 착상들은 그가

75) “레오 케스텐베르크,” <http://www.lkms.de/index.php/leo-kestenberg.html>, 검색일: 2015.03.01.

76) “레오 케스텐베르크,” http://de.wikipedia.org/wiki/Leo_Kestenberg, 검색일: 2015.02.08.

77) Leo Kestenber, *Musikerziehung und Musikpflege* (Leipzig: 1921), 56.

1921년과 1923년에 각각 발표한 “음악교육과 음악장려”(Musikerziehung und Musikpflege)와 “학교 및 국민 전체의 음악장려에 관한 건의서”(Denkschrift über die gesamte Musikpflege in Schule und Volk)에 담겨있다. 이 두 저서의 핵심개념인 ‘음악교육’과 ‘음악장려’는 ‘음악국가론’이라 불릴 수 있는 그의 사상의 기초가 된다. ‘음악교육’이라는 개념 하에서 케스텐베르크는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의 최고과정에 이르는, 교육체계를 갖춘 모든 시설에서의 교육적 가능성들과 교양적 잠재력 등을 상론하고 있으며, ‘음악장려’라는 개념 하에서는 예술가들 및 연주단체들의 과제, 그리고 청소년음악운동이 지향하는 ‘민속음악장려’의 가능성 등을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와 음악의 일치는 케스텐베르크에게 있어 일생토록 자신의 예술활동, 예술정책, 예술교육 등의 원동력이었으며, 이미 소년시절부터 그는 자유평등과 박애사상을 자신의 피아노연주에서 표현하고자 했다.⁷⁹⁾ 정치가 갖는 돌봄이 기능을 음악교육에 접목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였는데, 이러한 착상은 플라톤의 국가론에 근거한다고 그는 말한다.⁸⁰⁾ 그의 두 저서에 담긴 착상들은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치밀하다. 앞서 언급된 ‘음악을 통한’ 교육과 ‘음악을 위한’ 교육은 각각 ‘음악교육’과 ‘음악수업’으로 가시화된다. 여기서 전자는 교육의 원칙으로서 국민들의 삶에 힘을 제공하는 데에 반해, 후자는 음악이 지향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재능을 펼치게끔 적절한 방법으로 장려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음악교육’과 ‘음악수업’은 시민음악학교를 지지하는 두 기둥이자 양대 원칙으로서, 한

78) Leo Kestenberg, *Gesammelte Schriften* Bd. 1, 68.

79) Leo Kestenberg, *Gesammelte Schriften* Bd. 1, 213.

80) “레오 케스텐베르크,” <http://www.tau.ac.il/~musarch/>, 검색일: 2015.02.20.

“레오 케스텐베르크,” <http://www.musikschulen.de/medien/doks/mk13/dokumentation/f-2.pdf>, 검색일: 2015.02.20.

편으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다수의 비전문음악가들 및 전문적 연마를 꾀하는 직업음악가들 - 로 나뉘어 적용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의 학생들에게 필수불가결한 두 요소, 곧 ‘교양’과 ‘기술’이기도 하다. 그는 반면 교육과 수업이 서로 엄격히 구분될 수는 없으며, 서로 평형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교사들에게 권한다.⁸¹⁾

케스텐베르크가 1918년 프로이센의 학문·예술·국민교육부 음악담당관으로 부임한 후, 음악을 통한 국가건설의 개념 하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바로 사적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허가제였는데, 여기에는 자격시험이 전제되어 있었다. 1925년에 발효된 이 제도는 수많은 무자격 음악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3년의 보완작업을 거쳐 마침내 정착되고, 독일 사회음악의 질적 향상에 분수령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는 국가의 음악행정가 및 문화 정치인으로서 민간에 만연해 있던 음악 사교육의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당시의 음악교습 시장은 난립한 사립 콘서바토리(음악학원)들과 개인교사들의 지나친 광고로 배우려는 학생들은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⁸²⁾ 국민음악학교의 교사들은 공인된 음악교사 양성소에서 최소한 1년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도 제정되었다.⁸³⁾ 국민음악학교가 결코 사립 교습소나 개인 교사들의 생계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의 확신은 이미 입학조건이나 교육의 취지 면에서 이 공·사(公·私) 두 영역이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에 기초한다.⁸⁴⁾

81) Leo Kestenberg, *Gesammelte Schriften* Bd. 2.2, 108.

82) Eberhard Preußner, “Privatunterricht in der Musik. Ein neuer preussischer Ministerialerlass vom 8. Dezember 1928,” *Die Musik. Monatsschrift*, 21. Jg. 1928/29, Heft 5, Februar 1929, 355.

83) Leo Kestenberg (Hg.), *Jahrbuch der deutschen Musikorganisation* 1931 (Berlin: 1931), 197.

84) Leo Kestenberg, *Gesammelte Schriften* Bd. 1, 68.

이와 같은 음악을 통한 국가건설의 기초 위에서 케스텐베르크가 14년에 걸쳐 펼쳤던 프로이센의 음악개혁은 나치의 정권장악과 함께 하루아침에 종료된다. 그는 해직 당한 후, 그의 고향 체코를 거쳐 마침내 이스라엘로 망명해야 했다. 텔아비브에 정착한 그는 국제적인 교류와 함께 음악교육 분야에 헌신한다.⁸⁵⁾ 그는 자신이 비르투오소였으나, 비르투오소 주의의 독점 및 배타적 음악보다 한 사회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반적 음악, 즉 인간성 고양과 삶의 충만을 더 중시했다. 독일 정규학교도 케스텐베르크를 기념하는데, 특히 ‘독일 학교음악 교사연합회’(Verband Deutscher Schulmusiker)⁸⁶⁾는 ‘레오-케스텐베르크-메달’(Leo-Kestenberg-Medaille)이라는 상을 제정하여 격년으로 음악교육에 공헌이 큰 인물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는 2004년에 이 상을 수상한다.⁸⁷⁾ 나치추종자들은 학교 음악교과서에 조국의 노래들이 배제되는 것과 대중에 의한 비전문가들의 활동으로 독일음악의 고상함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그의 국민음악학교를 거부했다.⁸⁸⁾ 실제로 나치는 시민음악학교의 모체가 된 케스텐베르크의 국민음악학교도, 그가 개혁한 국가 음악체제도 와해시킬 수 없었으며, 현존하는 독일의 학교음악교육 및 사회음악도 그가 확립한 기초 위에 서있다.

85) “고국 이스라엘에서의 케스텐베르크,” <http://www.leo-kestenberg.com/musikpaedagogen-kulturpolitiker/index.cfm>, 검색일: 2015.02.08.

86) “독일 학교음악 교사연합회,” <http://www.vds-musik.de/auszeichnungen-und-wettbewerbe/>, 검색일: 2015.04.03.

87) “레오 케스텐베르크 상,” <http://www.musikschulen.de/partner/institute/kestenberg/index.html>; <http://www.vds-musik.de/auszeichnungen/die-leo-kestenberg-medaille/>, 검색일: 2015.04.10.

88) Emil Unger-Winkelried, “Kerstenbergerei in der Musik. Ein hergelaufener Jude vertrieb unsere Künstler!” *Arbeit und Staat*, 5. Jahrgang, Nr. 8 (1937), 9.

2) 음악을 통한 사회개혁: F. 외데의 ‘사랑의 공동체’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의 목적이 교육, 국민교양과 직업연마, 예술과 문화, 청소년 돕기 그리고 학문과 연구의 장려⁸⁹⁾로 명시되기까지는 프리츠 외데의 영향이 크다. 외데는 1924년에 발표한 “청소년과 국민을 위한 음악학교 - 시대의 계명”이라는 글에서 음악학교가 같은 도시 내에 있는 음악대학에 소속되는 것이 이상적이겠다는 착상을 포함하여 케스텐베르크의 국민음악학교를 사회 안에서 실현하고자 했다.⁹⁰⁾ 이것은 자신의 일이 “수많은 개체와 다양한 형태로 고립된 채 존재하는 음악영역들과 내면적인 욕구들을 공동의 바탕으로 모으고, 그 위에서 그 바닥과 자신들을 재발견하게 하는 것”⁹¹⁾이라고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공동의 바닥’은 당연히 음악학교를 뜻한다. 그의 목표는 서로 어울려서 자발적으로 노래하는 청소년 및 국민을 성취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철세운동 및 청소년음악운동의 정신과 일치한다. 그가 추구한 노래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므로, 건전하고 보수적이어야 했다. 그는 아이들의 골목길유행가 뿐 아니라, 성인들에 의한 단순한 예술모방 행위도 비교육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에게서는 성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래들도 음악회장이나 오페라하우스에서 제공되는 전문가용 음악이 아니라, 기술적 어려움 없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민요나 민요풍의 창작곡이었다. 그는, 음악에의 참여가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히 창작을 중시했고, 음악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도 창작이라고 믿었다. 가령, 노래를 부르거나 글을 읽는 사람의 경우, 그는 재생산자로서 생산자의 내

89) “시민음악학교의 목적,” <http://www.musikschulen.de/medien/doks/vdm/satzung-des-vdm2014.pdf>, 검색일: 2015.02.29.

90) Fritz Öde, *Musikschulen für Jugend und Volk - Ein Gebot der Stunde*, 41.

91) Fritz Öde, *Musikschulen für Jugend und Volk - Ein Gebot der Stunde*, 61.

면적 움직임과 공간을 감지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 그가 스스로의 움직임과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경우, 그것은 새로운 생산이 될 뿐 아니라, 첫 생산자와 내면적으로 같은 방향의 길을 걷게 된다고 설명한다. 아이들에 대한 음악지도 방법론에 있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미 배운 개별적인 음들의 알파벳으로부터, 마치 철자를 만들고 문법연습을 하는 것과도 같은 과정을 거쳐, 음정을 만들고 거기서 모든 건축용 돌들을 단계적으로 나란히 그리고 함께 놓는 일을 통해 [...] 멜로디, 곧 음악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한 멜로디의 생명력 있는 과정의 일관성으로부터 출발한 후, 그것을 아이에게 스스로를 펼치도록 단계별로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⁹²⁾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스스로 음악을 만드는 데에 있었는데, 그는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노랫말을 만들고, 거기에 선율을 붙이도록 아이들을 유도했으며, 그들이 선율을 완성하기까지 인내하면서 아이디어를 요구했다.⁹³⁾ 이처럼 아이들 속에 잠재해 있는 창의성을 마치 산파와도 같이 이끌어 내어 하나의 문화적 산물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합일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물론 그는 음악의 세계에서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영역 및 각각의 영역에 적합한, 구별된 음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이 두 영역이 서로 뚜렷한 경계 없이 상부상조, 왕래 및 교류한다는 사실 역시 지적한다.⁹⁴⁾ 외데가 1923년 프로이센 정부의 교육정책에 힘입

92) Fritz Öde, *Das schaffende Kind in der Musik. Eine Anweisung für Lehrer und Freunde der Jugend* (Wolfenbüttel, Berlin: Georg Kallmeyer Verlag, 1928), 44.

93) Fritz Öde, "Skizzen aus meinem Gesangsunterricht," *Sprechen, Singen, Musik*. (...), hg. von Richard Wicke (Leipzig: Dürrsche Buchhandlung, 1914), 208.

어 베를린 샬로텐부르크에 음악학교를 세우자, 함부르크, 카를스루에 (가창학교), 베를린, 브레멘 등 중북부의 여러 도시에서 국민음악학교가 설립된다.⁹⁵⁾ 경제공황 속에서도 1933년까지 생겨난 청소년 및 국민음악학교의 수는 28개였다.⁹⁶⁾

1952년 새 출발에 즈음하여 외데는 청소년음악학교의 역사를 개괄하는데, 북부의 민속음악학교 그룹들과 남부의 가창학교 그룹들이 유치원, 어머니노래단 그리고 아버지합창단들을 포괄하면서 생성 및 발전했음을 상기시킨다. 외데 역시 케스텐베르크처럼 음악장려와 음악수업의 이상적인 복합체계를 중시한다.⁹⁷⁾ 외데는 이상과 같은 음악교육 실무에서 뿐 아니라,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교육학의 근본이 가장 인간적인 요소들을 통해 서로 어우러지는 ‘사랑의 공동체’ 건설에 있음을 말한다.

태고의 시작, 즉 모든 교육학의 근본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는 인간적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잘 분배된 작업 인력에 의한 노동공동체의 개념 속에서 고갈되어 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타인들을 그들의 특별한 능력이나 정의로써 판단하기 보다는, 그 속의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완전히 긍정하는 사랑의 공동체다.⁹⁸⁾

94) Fritz Öde, “Skizzen aus meinem Gesangsunterricht,” 10-13.

95) Reiner Mehlig, “Musikschule,” Sp. 1611.

96) Diethard Wucher, “30 Jahre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 *Musik und Bildung* (Mainz: Schott Music, 1982), 176.

97) “Protokolle der Tagung »Jugendmusikschulen«,” 188.

98) Fritz Öde, *Musik und Erziehung. Ein pädagogischer Versuch und eine Reihe Lebensbilder aus der Schule* (Wolfenbüttel: Julius Zwißlers Verlag, 1919), 26.

3) 음악을 통한 삶의 고양: W. 트비텐호프의 ‘축제 공동체’

트비텐호프는 전후 청소년 및 국민음악학교의 재건과 지속적인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그가 추구한 국민음악학교(Volksmusikschule)는 음악교육의 전폭(für die gesamte Breite)⁹⁹⁾을 담당하는 것이었으며, 당연히 나이에 따른 구별은 폐지되었다. 그가 생애를 바쳐서 한 일은, 시민 전체가 하나의 연주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의 실현을 위한 매개체가 음악학교였다. 다시 말하자면, 음악학교는 ‘축제’를 주관하는 주체가 되고, 시민공동체는 음악학교에 이끌려 축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축제란 삶 그 자체이므로 결코 포기될 수 없다는 당위성이 생겨난다. 트비텐호프는 전후의 사회 분야들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음악 배우기 및 활동의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1954년에는 이사를 가는 마당에도 이 축제는 결코 생략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이사가 한창인 가운데, 그리고 성공할지의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축제에 착수한다. [...] 영광을 가져다주었고 화려했던 우물들이 고갈되고, 언젠가 삶을 꽃피웠고, 축제들의 현상이었던 정원들이 후폐되었기에 축제를 여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바로 노래가 불린 이 정원들의 유산이다. 이 정원들의 소유자는, 마치 옛 사람들이 신들의 선물로 인해 의무화 되었듯, 우리에게 의무화 시킨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짐 속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통해 이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고, 언젠가 »존재의 넘쳐남«(Überschüsse des Daseins)의 형체를 입었던 그 정원들을 그냥 단순히 포기할 수는 없다.¹⁰⁰⁾

99) Reiner Mehlig, “Musikschule,” Sp. 1612.

100) Wilhelm Twittenhoff, *Bausteine für Musikerziehung und Musikpflege*, Schriftenreihe B 20: *Musikalische Bildung. Gedanken aus zwanzig Jahren* (Mainz: B. Schott's Söhne, 1972), 11.

릴케의 사교에서 힌트를 얻었다고도 말하는 위의 시 “이사가 한창인 가운데”(Mitten im Umzug)¹⁰¹⁾에서 트비텐호프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논리로 삶의 근원인 축제를 논한다. 이 시에서 정원들은 축제의 현장으로서 곧 사회공동체가 되고, 음악학교는 축제의 주체가 되며, 오늘을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 축제 공동체가 된다. 트비텐호프는, 이 축제는 정원들의 소유자인 신이 의무화시켰고, 사실상 ‘존재의 넘쳐남’, 곧 고양된 풍부한 삶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말하고자 한다. 그는 ‘축제’ 개념을 부각시켜 전후의 음악학교를 되살리는 데에 성공할 뿐 아니라, 축제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게 하는 데에도 공헌한다. “우리 삶은 축제일거야”(Unser Leben sei ein Fest)라는 노래가 1972년도에 한 경연대회의 우승 곡으로 발표된 것도 이와 같은 시대조류 속에 있는 듯하다. 이 노래의 가사는 신학적으로는 의의가 없지 않음에도 여러 연방 주의 찬송가에 수록되었으며, 심지어 1987년엔 ‘신교 교회의 날’ 행사의 주제곡으로도 선정된다.¹⁰²⁾

그의 축제 공동체는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및 기관들의 이상적인 과제 할당 및 협력관계를 성사시키는 데까지 확장된다. 마침내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는 ‘유럽 시민음악학교연합’(Europäische Musikschul-Union)을 창립하게 되고, 정치부문의 유럽연합(EU)이 태동하기 전인 1976년에 이미 12개국을 회원으로 영입한다. 이 시기에 독일은 476개의 음악학교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럽 시민음악학교연합’은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의 회원이다.¹⁰³⁾ “음악을 통한 인격형성이 아직 시대에 맞는가?”(1964), “일반적

101) Wilhelm Twittenhoff, *Bausteine für Musikerziehung und Musikpflege*, 39.

102) 작사: Josef Metternich Team, 1972, 작곡: Peter Janssens, 1972, »Wir haben einen Traum« *Liederheft für die Gemeinde*, hg. im Auftrag des Landeskirchenrats der Evang.-Luth. Kirche in Bayern (München: Voggenteiler & Strube 1982), Nr. 745; Jürgen Henkys, *Singender und gesungener Glaube: hymnologische Beiträge in neuer Folge* (Göttingen: V&R, 1999), 150-151.

103) “유럽 시민음악학교연합,” <http://www.musikschulen.de/medien/doks/vdm/satzung->

인 인격형성의 테두리 안에서 음악적 인격형성의 의미”(1965), “음악학교 - 현대 세계 속의 교육기관”(1968) 등의 강연제목들은 시민음악학교의 축제 공동체적 사명과 방법론을 대변하고 있다.

4) 음악인들을 위한 가장 큰 일터

오늘날 시민음악학교는 예술경영 분야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시장’으로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독일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가 어디에나 내세우는 통계적 모토에도 잘 나타나 있다: “1,000,000명의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한 1,000개의 만남의 장소와 38,000명의 교사들”¹⁰⁴⁾이 바로 그것인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38,000이라는 숫자에 집중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공적, 사적 음악시설이나 기관, 그리고 그와 유사한 단체들의 연합체도 이만한 수의 음악인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독일연방 전체의 일반정규 학교에 고용된 음악교사의 수는 이보다 현저히 적다. 이들이 결성한 독일 학교음악 교사연합회의 2015년 4월 현재 회원 수는 5,000여명에 불과하다.¹⁰⁵⁾ 물론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은 음악학교설립 선구자들에게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없는 부수적인 산물이지만, 경제원칙이 직·간접적으로 관여 내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직을 형성 및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언제부터

des-vdm2014.pdf, 검색일: 2014.12.29.

104) “Musikschulen in Deutschland. 1000 Treffpunkte für über 1 Million Kinder, Jugendliche und Erwachsene,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플래카드); “시민음악학교 총 교사 수,” <http://www.musikschulen.de/vdm/index.html>, 검색일: 2015.03.20.

105) “독일 학교음악 교사연합회,” <http://www.vds-musik.de/auszeichnungen-und-wettbewerbe/>, 검색일: 2015.04.10.

가 독일에서 음악교육자(Musikpädagoge)로 불리는 음악전공자들의 취업에 관해 토론이나 저작이 이루어질 경우, 시민음악학교는 당연히 가장 먼저 거론된다. 말하자면 ‘시민음악학교에 취직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어떤 자세로 거기서 일할 것인가?’ 등과 같이 설정된 질문들에 답하는 식으로 음악교육자들을 위한 전문 안내서들이 말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의 서적은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용비율 또는 인력수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¹⁰⁶⁾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 산하 [음악]학교들에서 교사들의 총 숫자는 34,883에서 36,987로 상승했다. 최소한 절반의 일자리를 갖고 근무하는 전업 음악교육자의 비율은 32.6%에서 37.4%로 증가했다. [...] 음악교육학 전공학과들의 졸업생수는 여기에 맞추어 있다. 여기서 그 숫자는 다음과 같이 발전했다: 2008=455, 2009=502, 2010=536, 2011=536, 2012=684¹⁰⁷⁾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자리제공’(Stellenangebote)란을 설정해두고서 실시간의 구인광고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음악인들이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¹⁰⁸⁾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에는 그 이외에도 약 150개의 출판사, 악기제조회사, 음악전문회사 등이 음악장려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단체들 상호간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고, 이들 역시 일자리 제공자가 되고 있다.

106) 음악교육학이란 음악을 가르치는 모든 일의 총칭이며, 음악학교 실무에서는 주로 실기와 연계된다.

107) Stefan Lindemann, *Marketing und Management für Musikpädagoge* (Kassel: Gustav Bosse Verlag, 2014), 12.

108) “시민음악학교 일자리안내,” <http://www.musikschulen.de/service/stellenangebote/index.html> 검색일: 2015. 03.25.

4. 시민음악학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1) 성악과 기악의 불균형

노래운동으로 시작된 독일 시민음악학교의 교육내용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재출발 단계에서 몇 가지 큰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악수업의 급격한 감소다. 트비텐호프가 전문직업인 양성을 거의 거부했듯, 외데는 기악보다 성악에 치중했다.¹⁰⁹⁾ 그러나 과거 국수주의 사상의 고취수단이기도 했던 노래 부르는 국수주의 청산 교육의 와중에서 점점 소원해지고, 기악의 수요는 점점 증가한다. 이 변화의 양상은 급격했고, 일반학교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노래 부르고와 춤추기를 즐겨 하도록 조기에 고무하는 것은 또한 항상 말하기의 장려 및 그에 따른 쓰기과 읽기공부의 향상을 뜻한다”¹¹⁰⁾라는 인식은 빛을 발하지 못한다. 2007년 현재 독일 시민음악학교 전체의 재학생 수에서 성악과 기악이 차지하는 비율은 3.7:96.3으로, 100명 중 4명 미만이 노래를 배우고 있다[표 2]. 성악수업은 연령이 낮을수록 다소 높아지지만 (4.4%),¹¹¹⁾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진다(2.9%).¹¹²⁾

109) Michael Schenk, *Zwischen Ideologie und Innovation*, 109-110.

110) Helmut Breuer und Maria Weuffen, *Lernschwierigkeiten am Schulanfang. Schuleingangsdiagnostik zur Früherkennung und Frühförderung* (Weinheim: Verlag Beltz, 2004), 40.

111) *Statistisches Jahrbuch der Musikschulen in Deutschland 2007*, 15.

112) *Statistisches Jahrbuch der Musikschulen in Deutschland 2007*, 17.

[표 2] 각 연방주의 성악 및 기악 수업 수강생 수¹¹³⁾

연방주	성악	기악	성악:기악 비율
바덴-뷔르템베르크	3,486	143,278	2.4 : 97.6
바이에른	2,087	96,700	2.2 : 97.8
베를린	1,709	26,801	6.4 : 93.6
브란덴부르크	1,374	24,355	5.6 : 94.4
브레멘	13	1,790	0.7 : 99.3
함부르크	90	6,677	1.3 : 98.7
헤센	1,395	45,552	3.1 : 96.9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600	12,539	4.8 : 95.2
니더작센	943	59,300	1.6 : 98.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954	128,591	2.3 : 97.7
라인란트-팔츠	984	30,621	3.2 : 96.8
자를란트	52	3,173	1.6 : 98.4
작센	1,308	31,235	4.2 : 95.8
작센-안할트	829	14,547	5.7 : 94.3
슐레스비히-홀스타인	660	18,919	3.5 : 96.5
튀링엔	854	16,902	5.1 : 94.9
총계	19,338	660,980	2.9 : 97.1

[표 2]에서 성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방주는 베를린으로서 그나마 6.4%인 반면 가장 낮은 주는 브레멘으로 불과 0.7%다. 물론 성악은 학생들이 배우는 40종 이상의 악기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 비중조차 전체 수업의 1/40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칸토르’, ‘노래학교’ 또는 ‘노래 및 음악학교’ 등, 성악 우선적 용어들이 과거의 유물로 전락

113) 통계추출 자료: *Statistisches Jahrbuch der Musikschulen in Deutschland* 2007, 19-20.

하고, ‘기악 및 성악 수업’과 같은 기악 우선적 표기가 등장했다. 물론 독일에 여전히 수많은 합창단체들이 있지만, 이들은 교육기관이 아니며, 이들 중 대부분이 젊은 세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음악 학교는 이 같은 한쪽 날개뿐인 음악교육의 탈피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교육방침과 방법적인 측면의 과제들

독일은 오래전부터 음악교육에서 개인적인 연마와 더불어 앙상블, 합주 합창 등, 단체 또는 그룹 활동을 병행해왔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초 교육에서부터 거의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음악은 더불어 하는 것’이라는 사회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사실상 음악 외적인 요소에 속한다. 이런 단체 또는 그룹 활동이 지금까지 추가적인 수업이나 활동에 주로 국한되었으나, 핵심수업에의 적용이 보다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가 1993년 정기회의에서 이 주제로 연구팀을 구성¹¹⁴⁾한 때부터로 볼 수 있다. 개별수업에 적응된 학생들과 교사들의 입장에서 이 그룹수업이 어떻게 실시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교육적인 이점들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은 끝이 없다: 그룹의 규모, 연령, 시작시기, 수업시간의 길이, 빈도, 어떤 악기, 수업의 내용, 진행형태 등이 우선 질문될 수 있다. 또 여기에는 단체수업 시 교사의 자질, 체험, 방침과 방법, 수업준비 등의 변수가 생겨난다. 이것은 결국 맞춤형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성공 사례들이 있다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방법들이 얼마만큼 실현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권장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들이 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육적 측면과 나란히 경제적 측면도 있다. 단체 또는 그룹수업이

114)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 e.V., *Gruppenunterricht an Musikschulen* (Bonn: VdM, 1995), 5.

개별수업보다 저렴하다는 점은 학부모들에게 뿐 아니라, 상부기관들의 보조금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음악학교들에게 재정적인 해결책으로써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물론 그밖에도 동기부여 효과, 상호간의 기대부응 심리, 청각훈련, 선의의 경쟁, 협동능력 향상, 무대공포증의 극복, 비평력 향상, 사회성 함양, 음악에의 적응력 향상 등의 효과로 인한 이점들도 거론될 수 있다. 과거 나치들이 단체수업의 이유로 내세운 ‘공동체적 음악’ 개념은 경제성의 원칙보다는 훨씬 더 국민공동체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술교육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통일되어야 한다는 신조를 고수했다.¹¹⁵⁾

3) 시민음악학교의 정체성 및 교육환경의 문제

시민음악학교의 정체성은 예술적인 수단을 갖고, 예술적인 수단 속에서, 예술적인 수단을 통해서 교육하는 시설로 표현될 수 있다. 주관적 표현과 창의력, 민감함과 섬세함 등은 음악의 요소들이다. 따라서 음악적 자기 주관과 문화적 연마에 있어서의 개성이 억압을 당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면, 조직과 기획, 법규와 협약 등은 투명성, 안전, 행정기관들 사이의 상호 교류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시민음악학교가 상부행정기관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갖게 되는 일종의 긴장관계이므로, 평형관계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음악학교는 교육방침에 개성의 형성 및 계발과 관련된 부문들이 보호 내지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근무수칙, 직업행위, 관료근성 등으로 딱 짜인 행정과 음악수업은 비능률과 활기의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시민음악학교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로는 관계자들

115) Siebert, *Musikschulen für Jugend und Volk*, 1936/37, 219.

의 자화상과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이미지가 될 것이다. ‘학교’라는 단어가 어느새 다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지만, 다행히 시민음악학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 그렇다면 사회 모든 계층의 구성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 시민음악학교는 상류층출신 아이들이 여가시간을 즐기는 곳이라는 이미지도 있으므로,¹¹⁶⁾ 문화의 기초공급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사진에 대한 이미지로서, 시민음악학교는 연주가로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교사진의 예술적인 능력은 음악학교의 생명력이므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실력배양이 요구된다.

4) 일반학교 및 행정단체들과의 관계

시민음악학교연합회가 오랜 세월을 걸친 노력으로 성공한 과업들 가운데서 시민음악학교를 포괄적 국가 교육시스템 안으로 확고히 들여다 놓은 일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런데 시민음악학교를 일으킨 선구자들이 의식적으로 이 학교를 일반정규학교와 배치되게 했으며, 다른 편에서 발전되게 했다는 사실을 실무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시민음악학교는 이처럼 문화적인 교육에 치중하면서 사실상 정규학교와 대립관계에 서서 서로 평형을 이루도록 착안되었기 때문에 이 두 기관 사이에는 근본적인 갈등요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취지가 마치 이러한 갈등요소

116) Karl Ermert u.a., *Dokumentation der Tagung "Musik und Verantwortung. Perspektiven der Musikpolitik in Deutschland" (...)* vom 8. bis 9. Januar 2009 (Wolfenbüttel: Bundesakademie für Kulturelle Bildung Wolfenbüttel e.V., 2009), 85.

들이 아예 없는 것처럼 착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규학교와의 합병에 대해서는 더욱 진지하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음악학교는 자신의 표상인 동기부여 대신 지나치게 성과를 지향하면서 압박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금물이다. 실력을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직 학생 개개인의 의지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음악학교연합회는 다양한 콘셉트들이 실용화 되도록 사회기관들에 더욱 열린 자세를 요구하여, 관료주의 타파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각 학교들은 더욱 신뢰할만한 교육의 파트너로 머물러야 할 것이다.

시민음악학교들의 내부 과제들을 보면, 비정규직 교사들의 비율을 줄여서 교육의 질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일, 유치원과 정규학교 교육의 연장기관으로서 그들과의 사이에 필요한 법규의 제정, 보다 많은 아이들이 수학할 수 있고, 소외계층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수업료 절하 및 보조금 지급, 비영리기관으로 존재하는 사립 음악학원들과의 관계규정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연방주들의 행정부서는 시민음악학교들의 호소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문화의 고상함을 자랑할 뿐 음악학교의 운영을 재정력이 미약한 하급행정기관에다 맡겨 두고 있다. 한 시민음악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먼저 인식하고, 음악교육분야에 절약하는 것이 얼마나 가련한 일인지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¹¹⁷⁾

117) 그 사이에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이곳의 시민음악학교의 재정은 국가보조 88%, 자부담 12%로 마련된다(독일의 경우 각각 51%:47%, 각 주 7-8의 본문 참조).

5. 글을 맺으며

‘독일 시민음악학교연합회’에 소속된 개별 음악학교들은 마치 넓은 지면을 덮은 한 식물군에 비교될 만큼 국가 전 지역에서 동질성과 자율성을 가진 유일한 교육 및 문화시설로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이들은 끊임없는 보완과 개혁 속에서 학교의 위치나 과제 설정 및 타 교육기관들과의 관계를 점검해오고 있다. 독일 시민음악학교는 ‘사회민주주의’와 ‘청소년음악운동’의 20세기적 만남의 산물이다. ‘정치’와 ‘사회’ 분야로부터 각각 생성된 이 두 사조의 주체는 각각 ‘성인들’ 및 ‘청소년들’이며, 그 발단이 된 것은 각각 ‘경제’와 ‘문화’다.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는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생겨난 경제적 대중빈곤의 해결책으로, 노래운동은 문화독점의 해소를 추구한 진보적 개혁교육학으로부터 출발했다. 이 두 사조가 추구한 공통점들 중 하나는 ‘인간존엄성의 고양’으로, 전자는 각종 보험과 보장제도들을 통해, 후자는 음악 교육 및 장려를 통해 그것을 이루려했다. 독일 시민음악학교의 생성에 기여한 인물들 역시 이 두 사조의 신봉자들로서, 그 대표자로는 각각 레오 케스텐베르크와 프릿츠 외데로 압축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착상은 ‘음악의 민주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음악을 통한 문화적 빈곤의 퇴치, 즉 음악을 소수 전문인들의 소유로부터 해방시켜 시민 다수에게 선사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시민음악학교는 빈민구제와 음악교육을 위해 출발한 ‘콘서바토리’의 본래적 의미를 다소 회복한 셈이 된다. 케스텐베르크가 국가 최고 음악행정관이 된 것은 시민음악학교의 씨앗이 파종된 것에 해당한다. 시민음악학교는 정규학교와 문화계의 중간, 즉 법률상 불안정한 입지를 선택한 채,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생존보장을, 다른 한편으로는 성과위주 교육으로 피폐해져가는 정규학교의 보완 및 시민생활의 효소기능을 수행하고자 고도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

민음악학교는 또 사회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한 독일인들의 사회건설방식과 교육철학을 반영한다. 소수의 엘리트육성보다 다수의 비전문인 장려가 바로 그것이다. 이 비전문인공동체는 음악학교를 통해 축제 공동체를 이루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랑의 공동체’(외데)를 이상향으로 추구한다.

독일 시민음악학교 모델은 한국사회에 ‘문화복지’ 개념 하에서 가장 용이하게 도입될 수 있겠다. 한국의 대도시들에는 시립예술단이 있고, 거기에 소속된 단체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엘리트 내지 대표 개념을 갖는다. 만약 이 단체들의 다른 편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비전문 예술인의 자격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립음악학교가 설립된다면, 그것은 문화 활동 면에서 그들과 평형을 이루게 될 것은 물론이고, 그 도시에는 이 두 그룹의 상호 협력 하에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들이 시립음악학교를 통해서 직업음악가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당연지사에 속한다. 학생들의 수업료, 사회단체들 및 기업들의 기부금 등으로 시 당국은 예산의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며, 사설 음악학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형태의 시립음악학교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 속할 수 있다. 사설 음악학원들과는 달리 공립 음악학교들이 갖는 일반적 장점은 무엇보다 공론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탄탄한 기초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시립음악학교는 음악적 소양을 갖춘 많은 시민음악가들을 보유함으로써 문화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행정구역들에 있어서 시민음악학교가 인체의 필수효소(Fermente)¹¹⁸⁾에 비유될 만큼 해당 지역의 중요한 기관으로 정착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된다.

118) Hans Mersmann, "10 Jahre Verband der Jugend- und Volksmusikschule e.V. 12.-14.10.1962," Festschrift (Wolfenbüttel: Mösel Verlag, 1962).

참고문헌

- Abel-Struth, Sigrid. *Grundriß der Musikpädagogik*. Mainz: Schott Music, 1985.
- Becker, Andreas. “Albert Greiner und die Augsburger Singschule.” Dissertation, Universität Augsburg, 2007.
- Breuer, Helmut und Maria Weuffen. *Lernschwierigkeiten am Schulanfang. Schuleingangsdiagnostik zur Früherkennung und Frühförderung*. Weinheim: Verlag Beltz, 2004.
- Brockhaus Riemann Musiklexikon in vier Bänden und einem Ergänzungsband*, hg. von Carl Dahlhaus und Hans Heinrich Eggebrecht, Zweiter Band. Mainz: Atlantis·Schott, 1998.
- Der Zupfgeigenhansl* hg. von Hans Breuer, Reprint der Ausgabe Leipzig 1913. Leipzig: VEB Friedrich Hofmeister Musikverlag, 1982.
- “Ein Jahr Musikschulen für Jugend und Volk.” *Reichs-Jugend-Pressedienst*, Nr. 197, 1939.08.29.
- Eitner, Robert. “Kullack, Theodor.” *Allgemeine Deutsche Biographie*. Bd. 17. Leipzig: 1883.
- Ermert, Karl u.a.. *Dokumentation der Tagung “Musik und Verantwortung. Perspektiven der Musikpolitik in Deutschland (...) vom 8. bis 9. Januar 2009.”* Wolfenbüttel: Bundesakademie für Kulturelle Bildung Wolfenbüttel e.V., 2009.
- Florimo, Francesco. *La scuola musicale di Napoli e i suoi Conservatori*. 4 vols. Naples: Morano, 1881-1883.
- Görtz, Günther. *Grundzüge der Theorie einer Musikschule*. Augsburg: Verlag Wißner, 1998.
- Henkys, Jürgen. *Singender und gesungener Glaube: hymnologische Beiträge in neuer Folge*.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99.

- Hochschule für Musik Carl Maria von Weber Dresden 1856-2006.*
Festschrift, hg. von Manuel Gervink. Dresden: Verlag Sandstein,
2005.
- Heymann-Wentzel, Cordula. “Das Stern’sche Konservatorium der Musik
in Berlin.” *Musikwelten - Lebenswelten*, hg. von B. Borchard u.a.,
Köln, Weimar, Wien: Böhlau, 2000.
- Kestenberg, Leo. *Musikerziehung und Musikpflege*. Leipzig, 1921.
_____. (Hg.). *Jahrbuch der deutschen Musikorganisation 1931*. Berlin:
Max Hesse, 1931.
_____. *Bewegte Zeiten*. Wolfenbüttel: Möseler Verlag, 1961.
_____. *Gesammelte Schriften* Bd. 1: *Die Hauptschriften*, hg. von
Wilfried Gruhn. Freiburg: Rombach, 2009.
- Koschwitz, Nils. *Eine Musikschule als Heilsbringer für die deutsche
Musik und Nation? Eine Einführung in Richard Wagners Bericht
(...)*. Frankfurt a. M.: Peter Lang, 2011.
- Kremer, Joachim und D. Schmidt (Hg.). *Zwischen bürgerlicher Kultur
und Akademie: zur Professionalisierung der Musikausbildung in
Stuttgart seit 1857*. Schliengen: Argus, 2007.
- Kretschmar, Hermann. “Ausbildung deutscher Fachmusiker. Eine
musikalische Zeitfrage.” *Jahrbuch der Musikbibliothek Peters für
1901*, Jg. 8, Leipzig: C.P. Peters, 1902.
- Ledebur, Carl Freiherr von. *Tonkünstler-Lexicon Berlin’s von den ältesten
Zeiten bis auf die Gegenwart*. Berlin: Verlag von Ludwig Rauh,
1861.
- Lindemann, Stefan. *Marketing und Management für Musikpädagoge*.
Kassel: Gustav Bosse Verlag, 2014.
- Liszt, Franz. “Zur Situation der Künstler und ihrer Stellung in der
Gesellschaft.” *Franz Liszt. Frühe Schriften*, hg. von Rainer
Kleinertz. Wiesbaden: Breitkopf & Härtel, 2000.

- Mehlig, Reiner. "Musikschule."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Allgemeine Enzyklopädie der Musik*, Sachteil, Bd. 6. Kassel u.a.: Bärenreiter u.a., 1997, 1609-1618.
- Mendel, Hermann und August Reissmann. "Portugiesische Musik." *Musikalisches Konversationslexikon*, Ergänzungsband. Berlin: Robert Oppenheim, 1883.
- Mersmann, Hans. "10 Jahre Verband der Jugend- und Volksmusikschule e.V., 12.-14.10. 1962." Festschrift. Wolfenbüttel: Möseler Verlag, 1962.
- "Musikschulen für Jugend und Volk," *Die Hitlerjugend*, Nr. 34, 1938. Musikschulen in Deutschland. 1000 Treffpunkte für über 1 Million Kinder, Jugendliche und Erwachsene,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 (플래카드)
- Öde, Fritz. "Skizzen aus meinem Gesangsunterricht," *Sprechen, Singen, Musik. (...)*, hg. von Richard Wicke. Leipzig: Dürrsche Buchhandlung, 1914.
- _____. *Musik und Erziehung. Ein pädagogischer Versuch und eine Reihe Lebensbilder aus der Schule*. Wolfenbüttel: Julius Zwißlers Verlag, 1919.
- _____. *Musikschulen für Jugend und Volk - Ein Gebot der Stunde*. Wolfenbüttel: Julius Zwißlers Verlag, 1924.
- _____. *Das schaffende Kind in der Musik. Eine Anweisung für Lehrer und Freunde der Jugend*. Wolfenbüttel, Berlin: Georg Kallmeyer Verlag, 1928.
- _____. Hermann Reichenbach und Fritz Reusch. "Volks-Musikschule der Musikantengilde Berlin," Dorothea Hemming (Hg.).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Musikschule (1902-1976)*, Regensburg: Gustav Bosse Verlag, 1977.
- Preußner, Eberhard. "Privatunterricht in der Musik. Ein neuer

- preussischer Ministerialerlass vom 8. Dezember 1928.” *Die Musik. Monatsschrift*, 21. Jg. 1928/29, Heft 5, Februar 1929.
- Protokolle der Tagung »Jugendmusikschulen« vom 5. bis 7.9.1952 auf der Jugendburg Oberwerries bei Hamm/W. Hemming, Dorothea (Hg.). *Dokumente*.
- Riemer, Franz. “Fritz Jode und der Hohe Meißner.” Jürgen Reulecke, *50 Jahre danach - 50 Jahre davor: Der Meißnertag von 1963 und seine Folgen*. Göttingen: V&R, 2014.
- Schenk, Michael. *Zwischen Ideologie und Innovation. Eberhard Werdin und die Bedeutung der Musikpraxis in Schulmusik und Musikschule der Nachkriegszeit*. Essen: Blaue Eule, 2001.
- Scheytt, Oliver. *Musikschule. Ein Beitrag zum kommunalen Kulturverwaltungsrecht*.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Verlag W. Kohlhammer, 1989.
- Sing- und Musikschulen in Bayern. Zur Kommunalen Arbeitstagung “Musikalische Bildung ist Zukunftsinvestition” (...)*. Weilheim: Verband Bayerischer Sing- und Musikschulen e.V., 2007.
- “Spielschar oder Musikschule?” *Reichs-Jugend-Pressedienst*, Nr. 189, 1938.08.17.
- Spitta, Philipp. *Musikgeschichtliche Aufsätze*. Berlin: Verlag von Gebrüder Paetel, 1894.
- Statistisches Jahrbuch der Musikschulen in Deutschland 2007*, Bonn: VdM-Verlag, 2007.
- Stumme, Wolfgang (Hg.). “Musik und Volk.” Wolfgang Stumme (Hg.). *Schriften zur Musikerziehung*, Bd. 1, 2. Auflage. Berlin-Lichterfelde: Vieweg, 1944.
- Twittenhoff, Wilhelm. “Volksmusikschule.” *Zeitschrift für Musik*, 96. Jg. 1929, Heft 9.
- _____. “Jugendmusik und Musikschulen.” *Junge Musik*, 2. Jg. 1951, Heft 7.

_____. *Bausteine für Musikerziehung und Musikpflege*, Schriftenreihe B 20: *Musikalische Bildung. Gedanken aus zwanzig Jahren*. Mainz: B. Schott's Söhne, 1972.

Unger-Winkelried, Emil. “Kerstenbergerei in der Musik. Ein hergelaufener Jude vertrieb unsere Künstler!” *Arbeit und Staat*, 5. Jahrgang, Nr. 8, 1937.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 e.V., *Gruppenunterricht an Musikschulen*. Bonn: VdM, 1995.

Völkische Musikerziehung, 5. Jahrgang, 1939, Heft 3.

Waldmann, Guido. “Zur Geschichte der Musikschulen in Deutschland.” W. Müller-Bech und W. Stumme (Hg.). *Die Musikschule, Bd. I: Situationen-Meinungen-Aspekte*. Mainz: 1973.

“Wir haben einen Traum.” *Liederheft für die Gemeinde*, hg. im Auftrag des Landeskirchenrats der Evang.-Luth. Kirche in Bayern, München: Voggenreiter & Strube, 1982, Nr. 745.

Wucher, Diethard. “30 Jahre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 *Musik und Bildung*. Mainz: Schott Music, 1982.

Wucher, Diethard (Hg.). *Die Musikschule*, Band II, Dokumentation und Materialien. Mainz: Schott Musik International, 1994.

“고국 이스라엘에서의 케스텐베르크,” <http://www.leo-kestenberg.com/musikpaedagogen-kultur-politiker/index.cfm>, 검색일: 2015.02.08.

“독일 학교음악 교사연합회,” <http://www.vds-musik.de/auszeichnungen-und-wettbewerbe/>, 검색일: 2015.04.10.

“동서독 시민음악학교의 통합,” <http://www.thueringer-musikschulen.de/landesverband/geschichte/index.html>, 검색일: 2015.03.09.

“레오 케스텐베르크,” http://de.wikipedia.org/wiki/Leo_Kestenberg, 검색일: 2015.02.08.

- “레오 케스텐베르크,” <http://www.lkms.de/index.php/leo-kestenberg.html>,
검색일: 2015.03.01.
- “레오 케스텐베르크,” [http://www.musikschulen.de/medien/doks/mk13/
dokumentation/f-2.pdf](http://www.musikschulen.de/medien/doks/mk13/dokumentation/f-2.pdf), 검색일: 2015.02.20.
- “레오 케스텐베르크,” <http://www.tau.ac.il/~musarch/>, 검색일: 2015.2.20.
- “레오 케스텐베르크 상,” [http://www.musikschulen.de/partner/institute/
kestenberg/index.html](http://www.musikschulen.de/partner/institute/kestenberg/index.html); [http://www.vds-musik.de/auszeichnungen/d
ie-leo-kestenberg-medaille/](http://www.vds-musik.de/auszeichnungen/die-leo-kestenberg-medaille/), 검색일: 2015.04.10.
- “시립음악학교,” <http://de.wikipedia.org/wiki/Musikschule>, 검색일: 2015.02.09.
- “시민,” <http://ko.wikipedia.org/wiki/%EC%8B%9C%EB%AF%BC>, 검색일:
2014.10.10.
- “시민음악학교 수(2014년),” [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
fakten/vdm-musikschulen/ index.html](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fakten/vdm-musikschulen/index.html), 검색일: 2015.04.01.
- “시민음악학교연합회 개명,” [http://www.musikschulen.de/vdm/chronik/
index.html](http://www.musikschulen.de/vdm/chronik/index.html), 검색일: 2015. 03.20.
- “시민음악학교의 목적,” <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index.html>,
검색일: 2015.02. 01.
- “시민음악학교의 협력기관들,” <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
검색일: 2015.02.10.
- “시민음악학교 일자리안내,” [http://www.musikschulen.de/service/stellenangebote/
index.html](http://www.musikschulen.de/service/stellenangebote/index.html), 검색일: 2015.03.25.
- “시민음악학교 총 교사 수(2015년),” “독일 음악교사연합회,” [http://www.
musikschulen.de/vdm/index.html](http://www.musikschulen.de/vdm/index.html), 검색일: 2015.03.20.
- “시민음악학교 확장계획안(1972년),” [http://www.freygeist.com/referenzen/
005_VDM.pdf](http://www.freygeist.com/referenzen/005_VDM.pdf), 검색일: 2015.02.20.
- “아샤펜부르크 음악학교,” <http://www.musikschule-aschaffenburg.eu/>,
검색일: 2015.01.20.
- “악기별 선호도(2015년),” [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
fakten/die-beliebtesten-instrumente/index.html](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fakten/die-beliebtesten-instrumente/index.html), 검색일: 2015.04.01.

- “연령대비 학생 분포율(2015년),” <http://www.musikschulen.de/musikschulen/fakten/schuelerzahl-altersverteilung/index.html>, 검색일: 2015.04.10.
- “연주가길드,” http://de.wikipedia.org/wiki/Georg_G%C3%B6tsch, 검색일: 2015.02.22.
- “요셉 프뤼리히,” http://wuerzburgwiki.de/wiki/Franz_Joseph_Fr%C3%B6hlich, 검색일: 2015.2.20.
- “유럽 시민음악학교연합,” “시민음악학교의 목적,” <http://www.musikschulen.de/medien/doks/vdm/satzung-des-vdm2014.pdf>, 검색일: 2014.12.29.
- “청소년 음악경연대회,” http://de.wikipedia.org/wiki/Jugend_musiziert, 검색일: 2015.04.20.

Abstract

Study of the Origins and Social Role of Music School in Germany

Chae Heung Lim

The German music school is a product of the merging of the social democracy and the Singing Movement (part of the German Youth Move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social democracy originated from the pauperization of the population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whereas the Singing Movement formed via innovative musical education. The leader of those two movements, both exceptional musicians and educationists, Leo Kestenberg and Fritz Öde, who established the “Democracy of Music,” were from the bourgeoisie. They tried to resolve the cultural indigence and wanted to reduce the divide between rich and poor. Music shouldn’t be the belonging of the upper class but rather be available for the bourgeoisie, too, which was achieved by founding the music school, an institution based on the conservatory for less wealthy citizens realized especially by Kestenberg. In today’s Germany the music school portrays the pursuit of a better quality of living in the German society, while being among the state-run education and the urban promotion of culture.

Keywords: German music school, *Wandervogel* movement, song movement, youth music movement, Leo Kestenberg, Fritz Öde, Wilhelm Twittenhoff, social democracy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5년 4월 30일	2015년 5월 4일~23일	2014년 6월 1일